

오피니언

월/요/광/장

양성우



총장로를 거닐고 싶다.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한가하게 느린 걸음으로 그 길거리를 배회하고 싶다.

발걸음을 끈끈하게 붙드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그곳에는 없는 까닭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총장로를 생각할 때마다 어느 한 곳을 머리에 떠올린다.

그런데 웬일일까. 우리의 총장로를 생각하면 어딘가 빈 곳이 있는 것만 같은, 어떤 것인가 한두 가지가 빠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정말이지, 지금의 총장로에다가 음악을 매혹적인 생음악에 몸을 맡기고 물결처럼 흐느적거리며 감동의 길거리. 마치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모인 것처럼 때를 지어서 걸으면서도 한결같이 음악에 취하는 곳.

그런데 웬일일까. 우리의 총장로를 생각하면 어딘가 빈 곳이 있는 것만 같은, 어떤 것인가 한두 가지가 빠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정말이지, 지금의 총장로에다가 음악을 매혹적인 생음악에 몸을 맡기고 물결처럼 흐느적거리며 감동의 길거리. 마치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모인 것처럼 때를 지어서 걸으면서도 한결같이 음악에 취하는 곳.

그리운 총장로

나뭇잎 새운듯 어찌랴. 온 길바닥을 휩쓸러 다니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어깨를 들쭉이면서.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나면 술도 한 잔 나누며 인생을 이야기하자.

날기 위해 광주에 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런 날에는 광주는 자연히 수입이 넘치고 넉넉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도 우리의 총장로가 두드러진 예술의 거리가 된다면, 광주야말로 여유롭고 두드러진 명품도시로 우뚝 서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한 것이다.

언제인가 나는 그런 명품도시 광주에 가고 싶고, 문화예술이 깊이 스며들어서 곳곳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총장로를 거닐고 싶다.

〈시인·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초계합 침몰 철저한 진상규명 우선 패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합인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비탄에 빠졌다.

업을 최대한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해군은 첨단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 역시 시급한 과제다.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갖가지 유언비어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철저히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군 관계자들의 엇갈린 주장이 이같은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배 뒤쪽 바닥이 구멍이 났다는 초기 합참 발표와 달리 천안함은 강력한 폭발로 물로 쪼개진 것으로 드러나 침몰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만에 하나 이번 사고가 선박 결함과 같은 내부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우리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셈이다. 해군은 물론 전군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무기 체계에 대한 재검증이 불가피하다.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이번 사건에 집중돼 있다. 원인 규명 작업이 중단되면 안된다.

광역의원들 세금 평평쓰며 하는 일 뭐가

제4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보면 광역의회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 의심이 들 정도다.

이 같은 의정활동은 '헬세만 축내는 집단'이라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 같은 고액연봉을 받는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보면 더욱 한심하다. 경실련이 2006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6개 시도 광역의회의 의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는 2.07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 같은 고액연봉을 받는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보면 더욱 한심하다. 경실련이 2006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6개 시도 광역의회의 의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는 2.07건에 지나지 않았다.

법조 칼럼

노강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 도중에 40대 판사가 상대방 당사자와의 대화 중에 끼여든 70세 노인에게 "어디서 비롯했어 뚝 뒤편이나 오느냐"고 했다가 노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노후에 의료용과 불안을 느끼는 노인들은 경제적 유무를 떠나서 아직도 자신과 따로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상상을 하다보면 느끼게 된다.

당시 판사의 의도는 법정예절을 지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어딘가에 아닌 70세 노인에게 "버릇없다"는 용어

노인법률지원 시대 열렸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는 2007년부터 노인법률지원봉사단(변호사 12명)을 구성하여 노인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과 생활법률 교육을 하고 있다.

노인 법률지원 시대 열렸다

를 선택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그 노인은 손윗사람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을 손아래 사람에게 들었던 것이 얼마나 충격이 컸으며 자신의 사건에 판결을 내릴 판사를 상대로 진정까지 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는 2007년부터 노인법률지원봉사단(변호사 12명)을 구성하여 노인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과 생활법률 교육을 하고 있다. 매월 8일 효사랑데이(광주공원)에 담당 변호사 2명이 출장상담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장 상담 또는 생활법률 교육을 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이고, 보통 노인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기 쉬우나,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상담할 사람도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담사례 중에는 부양료나 대여금, 상속, 자녀 이혼에 관한 상담이 많았다는 것 이럴 때면, 노인관련 기관에서 체계적인 상담, 금전거래에 관한 생활법률 교육을 하였다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며칠 동안 잠을 못이루다가 용기를 내어온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취업도 되지 않고, 사업체 운영도 잘 안 되는 경우에 가장 쉽게 손을 내미는 대상은 친부모이거나 장인, 장모인 경우가 많다.

소비자 심리 이용 눈속임 할인판매 '불쾌'

이제 내년 겨울이나 입을 겨울용 파카는 창고에 들어가진 지금 마지막 세일을 하는 곳이 많다. 이 시기에는 옷값이 싸질러 얼마 전 대형 할인점에 갔다.

오리털 잠바를 1만7천원에 판다"는 안내방송이 울렸다. 나는 이게 웬 떡이나 싶어 부리니까 달려가 사이즈가 조금 크다 싶었지만 산게 맞다. 아이를 웃을 듯 기쁘다. 저어 도 4~5만원은 줘야 하는 오리털 잠바를 이

기고

김신남



꿈의 스피드 축제,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이 지난 12일 바레인그랑프리로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2010년 시즌 포뮬러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19개 라운드에서 열전을 벌인다.

우리에게는 국내 모터스포츠의 역사를 다시 쓸 대한민국 최초의 포뮬러원 그랑프리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시즌 17라운드로 치러질 코리아그랑프리까지 올 시즌 챔피언 타이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우리에게는 국내 모터스포츠의 역사를 다시 쓸 대한민국 최초의 포뮬러원 그랑프리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시즌 17라운드로 치러질 코리아그랑프리까지 올 시즌 챔피언 타이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우리에게는 국내 모터스포츠의 역사를 다시 쓸 대한민국 최초의 포뮬러원 그랑프리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시즌 17라운드로 치러질 코리아그랑프리까지 올 시즌 챔피언 타이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6억 명이 즐기는 스피드 축제의 시작

가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한다. 최고 화두는 단연 미하엘 슈마허다. 40세의 나이와 3년의 공백기를 극복하고 슈마허가 정상에 탈환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제 17라운드 무렵에 시즌 챔피언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 그랑프리는 전폭적 규정 변화와 F1의 신화 슈마허의 복귀, 시즌 최종 챔피언 결정전이라는 최고의 흥행카드를 손에 거머쥐었다.

올해로 개최 60주년을 맞는 포뮬러원은 새로운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무엇보다 팀과 선수들의 자이언트와 함께 슈마허의 복귀가 두드러진다. 올 시즌 포뮬러원은 지난해보다 2개 팀이 늘어난 12개 팀이 참가해 24명의 드라이버

올해로 개최 60주년을 맞는 포뮬러원은 새로운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무엇보다 팀과 선수들의 자이언트와 함께 슈마허의 복귀가 두드러진다. 올 시즌 포뮬러원은 지난해보다 2개 팀이 늘어난 12개 팀이 참가해 24명의 드라이버

렇게 싸게 샀으니 큰 돈을 아꼈다는 기쁨이 기본이 좋았다. 그런데 에스케이미터를 타기 위해 가다 보니 한 귀퉁이에서 방금 전에 샀던 아이를 파카와 비슷하게 전시돼 팔리고 있었다.

의류들이 매장 한편에 마련된 할인 코너에서 똑같은 1만7천원에 팔리고 있는것은 소비자를 속인적 아닌지 묻고싶다. 소비자들이 싸게 사라는 알뜰함과 물건을 파는 타임밍을 놓치면 다시 살수 없을거라는 불안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고객을 모은 뒤 어찌파 싸게 팔 물건을 갖다 엄청난 인심을 쓰는 양 현혹하는 상술은 고쳐져야 한다.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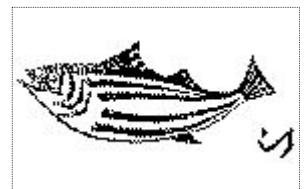
농어목 고등어과의 바다물고기. 불포화 지방산과 셀레늄 등이 풍부한 고단백 저지방 식품. 근육에 혈액이 많아 살은 붉은색을 띤다.

세계 참다랑어의 80%를 소비하는 일본이었다. '400년 전통 음식 문화 사수'를 선언하며 저지에 나섰다.

아열대성어로서 우리나라 연근해에 선 거의 잡히지 않았다. 조업을 하려면 북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제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후폭풍은 계속될 조짐이다.

참다랑어는 수명이 40년에 이르는 장수 어종이다. 한 번 자원이 고갈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제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후폭풍은 계속될 조짐이다.

참치대전(大戰)



참다랑어가 국제사회의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남획으로 인해 대서양 참다랑어 개체 수는 1970년 이후 80% 감감했다.

참다랑어 개체 수는 1970년 이후 80% 감감했다. 급기야 모나코는 지난 13~25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 수출입 금지종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출했다.

발견하고 나선 것은 스시 등으로 전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